

CULTURE NOTE



52722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 215 (칠암동)
T. 1544-6711

Gyeongnam Culture & Art Center
52722 215, Gangnamro, Jinju-si, Gyeongsangnam-do, Korea

 청렴한 당신이 문화예술을 아름답게 합니다.

문화
노트
즐거움 내릴

2020 9/10

공연·전시 일정

● 대공연장 ● 대공연장 로비 ● 제1전시실 ● 제2전시실

9
September

SUN	MON	TUE
		1 ● 2020 이철수 판화전 (~8일)
6	7	8
13	14	15
20	21	22 ● 제70회 개천예술제 전국음악경연대회
27 ● KNN 창사 25주년 기념 더클래식 경남	28	29 ● 9월 문화가 있는 날 해설이 있는 발레

WED	THU	FRI	SAT
2	3	4 ● 뮤지컬 팬레터 ● 제21회 진주서양화작가회 정가전(~8일)	5 ● 뮤지컬 팬레터
9	10	11 ● ● 경남 청년 레지던시 연합전(~16일)	12
16	17 ● 경남도립국단 연극 토지 ● 제27회 경남서단전 (~22일)	18 ● 경남도립국단 연극 토지 ● 제30회 진주청년작가회 정가전(~22일)	19 ● 경남도립국단 연극 토지
23	24 ● 국립합창단 베토벤 장엄 미사	25 ● ● 전국사진촬영대회 작품 전시(~29일)	26 ● 개천전국무용경연대회
30			

10
October

SUN	MON	TUE
4 ● 진주유스오케스트라 10주년 정기연주회	5 ● ● 2020 개천미술대상전 입상작 전시(~15일)	6
11 ● 진주다별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12	13
18 ● 진주가요제	19	20
25	26	27

WED	THU	FRI	SAT
	1 추석	2	3 개천절
7	8 ● 2020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9 한글날 ● 2020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10
14	15 ● 정동극장 공: 장녹수전	16 ● 제50회 축석화전(~20일) ● 전국영상인연합 진주지부 사진 전시회(~20일)	17
21 ● 진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2 ● 제70회 개천예술제 전국회화대회 및 실기대회 입상작전시(~25일) ● 제41회 직전(~26일)	23	24 ● 최한울과 함께하는 Wind Fiesta
28	29 ● 제12회 진주아외사생회 정가전(~11월 2일) ● 문미순 개인전(~11월 2일)	30 ● 진주원로작가전 정기 전시회(~11월 3일)	31 ● 10월 문화가 있는 날 굿Good보러 가자

※ 문화노트에 게재된 모든 공연 및 전시의 일정 · 출연진 ·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주최 측의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팬레터

9.4. - 9.5.

금 19:30
토 14:00, 19:00

대공연장

V 80,000
R 60,000
S 50,000
A 40,000

14세 이상

가장 주목받는 창작 뮤지컬의 귀환! 완벽한 프로덕션으로 돌아온 뮤지컬 <팬레터>가 9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뮤지컬 <팬레터>는 자유를 억압하던 일제 강점기(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소설가 '김유정'과 '이상', 그리고 문학을 사랑하고 열망했던 문인들의 모임 '구인회'에서 모티브를 얻어, 작가의 상상력을 더한 모던 팩션(Faction) 뮤지컬이다. 당대 활동하던 문인들의 실제 작품을 인용한 대사과 장면들은 극 중 판타지에 적절히 스며들어 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뮤지컬 <팬레터>의 무대는 일제 강점기 당시 적산가옥에서 볼 수 있던 2층 구조로, 긴 복도와 목조 지붕 같은 건축적 요소를 취해 시대적 특징을 살리면서, 현실 공간과 내면의 이미지가 잠재된 이중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다. 극에 등장하는 음악 역시 시대적 분위기와 감성, 그리고 우리말 가사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선율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시대적 분위기를 오롯이 담은 넘버들은 순수하게 문학을 사랑했던 당대 문인들의 감성을 때로는 걱정적으로, 때로는 서정적으로 전달한다. 여기에 각 분야를 대표하며 현재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정상의 크리에이티브 팀들이 의기투합하여 창작 뮤지컬 신화를 이어간다. 초연과 재연을 이을 막강한 캐스팅, 더욱 탄탄해진 대사과 풍부한 음악, 시대적 정서를 담은 아름다운 무대! 팬레터를 계기로 문인들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 한 작가 지방생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뮤지컬 <팬레터>를 만나보자.

Schedule

일정	김해진	정세훈	히카루	이 윤	이태준	김수남	김환태
9.4.(금) 19:30	김재범	문성일	소정화	김지휘	양승리	이승현	권동호
9.5.(토) 14:00	이규형	문성일	소정화	김지휘	양승리	이승현	권동호
9.5.(토) 19:00	이규형	문성일	김히어라	김지휘	양승리	이승현	권동호

뮤지컬 팬레터 5인 미니 인터뷰



Q

1. 누군가에게 <팬레터>를 쓴다면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나요?
2.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지루한 시간에는 무얼 하시나요?
3. 모든 풍경이 금빛으로 느껴졌던 순간은?
4. 신인 탄생의 순간! 기억나는 에피소드는?(데뷔 초기에 기억나는 일화)
5. 글자 그대로 써서 이루고 싶은 것은?
6. 거울 속에 비치는 내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순간은?
7. 가장 기억에 남는 팬레터는?



문성일 | 정세훈 역

1. 당신이 존재함으로 인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2. 책을 읽거나 강아지와 산책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3. 할머니와 데이트를 했던 순간!
4. 라디오에서 제가 제 입으로 '햇' 하다고 소개했던 순간이요... 별명 탄생의 순간!
5. 로또 당첨!!
6. 전날 밤에 야식 먹고 다음날 샤워하려 갔을 때...
7. 어머니가 책 선물로 주시면서 써주신 편지!

소정화 | 히카루 역

1. 당신의 고뇌와 인내를, 그 시간을, 그 이야기를 귀하게 생각한다고.
2.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지루한 시간을 실컷 누립니다.
3. 아직 찾아와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생을 마감할 때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4. 공연이 끝나고 한참이나 지났는데 극장 불이 꺼질 때까지 분장실에 앉아 있었던 시간.
5. 평안하기를. 나를 비롯한 모든 이가 평안하기를
6. 서럽게 울다가 잠든 다음날 얼굴을 볼 때.
7. 일러스트 에세이 책이 기억에 남아요. 동화 같은 그림에 위로의 말들이 적혀있는... 책장마다 그에 맞는 생각과 질문이 적혀 있었는데, 그 마음과 시간이 귀하고 너무 아까워서 한 장씩 아껴 읽은 팬레터였어요.



김재범 | 김해진 역

1. 당신의 말들로 그때 내가 버티었습니다.
2. 게임
3. 커튼콜
4. '지하철 1호선' 공연 때, 매일 컵 족구를 했던 것.
5. 부자
6. 인천 송도 유원지 앞에 있는 요상한 거울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7. 지금 이 순간, 내가 읽고 있는 팬레터

이규형 | 김해진 역

1. 저의 이야기, 제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다.
2. 미드를 봅니다.
3. 다쳐서 팔이 부러졌을 때...
세상이 금빛으로, 노랗게 보이더라고요.
4. 뮤지컬 <빨래> 연습 때, 정표형네 집(옥탑방)에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5. 부모님 건강
6. 살이 너무 많이 빠졌을 때.
7. 사랑하는 사람들이 써준 편지!



김히어라 | 히카루 역

1.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게 있어 가치 있는 사람인지.
2. 영화를 틀어 놓거나 책을 보거나 글을 씁니다.
3. 조카가 자라나는 모든 순간들.
4. 앙상블 첫 데뷔 때, 동기들이 같이 와서 커튼콜 때 기립해 준 기억. 그때 제가 마치 주인공 같았고, 꼭 잘 돼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아프지 말고 잘 살다 가길.
6. 마음이 나뻘 때, 오랜만에 거울을 봤는데 마치 내가 아닌 것 같았던 순간.(눈빛이나 모든 게 못난이...)
7. 날 보고 배우를 꿈꾸는 누군가가 나와 같은 배우가 되길 희망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창단공연
경남도립극단

연극

토지 I

경남도립극단 창단공연 연극 토지 I

9.17. - 9.19.

목 19:30
금 19:30
토 15:00

대공연장

네이버 무료예약
<https://bit.ly/3fOfQbS>

14세 이상

주최  경상남도 주관  경남도립예술단

“땅을 딛고 살다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들꽃처럼 가벼운 우리의 목숨,
허나 따뜻한 밥 한 그릇, 마실 시원한 물 한 모금,
목숨보다 가볍다고 누가 말하랴?”

박경리 작가의 대하소설 '토지'가 <연극 토지>로 재탄생한다. 올해 창단된 경남도립극단은 첫 작품으로 '토지'를 선택했다. 경남을 주배경으로 역동적인 한국 근현대사와 우리 민족의 삶을 폭넓게 그려낸 '토지'는 경남도립극단의 창단 작품으로 손색없다. 박경리 작가의 아름다운 문체를 대담하고도 섬세하게 풀어낸 박장렬 감독의 빼어난 연출과 40여 명 배우들의 열정적이고 생생한 몸짓으로, <연극 토지>는 원작을 뛰어넘는 감동을 경남도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경상도 사투리를 맛깔스럽게 풀어낸 김민정 작가와 박진규 음악감독, 엄진선 무대디자이너 등 창작진이 뜻을 모아, 극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또한, 경남연극제 연기대상에 빛나는 김수현, 김현수, 박승규, 이은경, 차영우, 천영훈 배우를 비롯하여, 신인연기상을 수상한 손상호, 한재호 배우 등 경남의 쟁쟁한 신규 배우들이 의기투합해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남도립극단 창단공연 <연극 토지>는 코로나19로 치친 요즘, 생명의 아름다움과 가치, 함께함의 소중함을 되새겨 줄 것이다. 경남도립극단의 첫걸음, 그 새로운 역사의 시작에 함께 할 경남도민 여러분을 초대한다.

국립합창단 베토벤 장엄 미사

—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라

9.24.

목 19:30

대공연장

V 40,000

R 30,000

S 20,000

A 10,000

8세 이상

지휘 윤의중
국립합창단
시흥시립합창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훈
베이스 최중우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하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베토벤이 살아생전 자신의 작품 중 최고라고 자부한 장엄 미사곡을 경남도민에게 선보인다. 국립합창단과 시흥시립합창단,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박은주, 메조 소프라노 양송미, 테너 강훈, 베이스 최중우가 함께하는 이번 공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라'는 부제와 함께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윤의중 예술감독이 이끌고 있는 국립합창단은 우리나라 합창음악의 전문성과 예술성 추구를 위해, 1973년 창단되었다. 국립합창단은 합창예술운동을 위한 선두주자로서, 우리나라의 합창 수준을 아마추어에서 예술적 차원으로 도약시키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합창대국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바흐의 '마태 수난곡', '요한 수난곡' 등 유명 합창곡을 국내에 소개했으며, 르네상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적 특성과 정감을 표출하는 방법 및 해석법을 통해 합창음악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으며, 한국합창곡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매년 정기공연과 기획공연, 지방순회공연, 오페라공연 등 수많은 공연을 소화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해외공연을 통해 한국합창의 높은 수준을 과시함으로써 한국합창의 세계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시흥을 대표하는 시흥시립합창단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최상의 하모니로 선보이며, 각종 연주회를 통해 시흥의 문화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현재 송성철 지휘자를 필두로, 40여명의 젊은 단원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정통클래식 음악부터 대중음악, 뮤지컬 등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매년 50여회의 공연과 축제 및 행사에 참여하여, 많은 관객들과 활발하게 소통함으로써 미래의 문화예술 도시 시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문화 홍보대사로 활약하고 있다. 한경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경제와 문화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는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시도로서 2015년 창단되었으며, 동년 11월 4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국제음악제 연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지휘자 금난새를 초대음악감독으로 초빙, 단원선발과정에서부터 오케스트라 합주 오디션을 실시하는 등 신선한 시도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예술적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넘치는 젊은 연주자로 구성된 한경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단원들의 자유로운 열정을 장려하며, 다양하고도 유연한 활동을 통해 청중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제공하고 있다.

정동극장 궁: 장녹수전



10.15.

목 19:30

대공연장

균일 30,000

8세 이상

주최 한국문화재단

주관 경상남도문화재단 정동극장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단

정동극장 <궁: 장녹수전>이 10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2018년 초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한층 새로워진 모습으로 재탄생한 <궁: 장녹수전>은 조선 최고의 기녀이자 욕망의 화신으로 낙인찍힌 장녹수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녀가 탐한 권력 이야기와 그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예를 상상해 재구성한 창작극이다. 한국의 전통놀이와 기방문화, 궁 문화를 장녹수라는 캐릭터를 통해 한자리에 모은다. 정월대보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등불춤과 함께 소담스런 서민 놀이문화를 흥겹게 펼친다. 백성들이 연산과 장녹수를 풍자하며 노는 '정업이 놀이'는 경기도당국의 사람지기만한 허수아비 인형 '정업이'를 활용해 전통적인 놀이양식을 곁들인다. 기방에 들어가 본격적인 기생 수련에 몰두하는 장녹수는 기생들과 함께 장고를 둘러매고, 장단과 함께 빠른 춤사위가 어우러진 '장고춤'을 선사한다. 한량들이 추는 '한량춤', '교방무' 등 흔히 만날 수 없었던 기방문화가 펼쳐진다. 장녹수가 입결하고, 궁에서는 궁녀들이 꽃을 들고 추는 춤, 화려한 '가인전목단'을 선보이며, 연산과 장녹수의 마지막 연회는 배를 타고 즐기는 연회 '선유락'으로 장식한다. 장녹수와 신하들이 서로를 견제하며 대적하는 장면에서는 격렬한 복춤이 긴장감을 높인다. 권신들이 연산에 상소문을 올리기 시작하고, 긴 상소문들이 연산의 몸을 움아매며

추는 군무는 소품의 활용과 영상 효과가 돋보이는 대표 장면이 될 것이다. 상소문으로 사용된 글자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의미에서 '한글'로 진행되며, 대표적인 한국현대미술의 거장 이성근 화백이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초연 작품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장면들도 추가되었다. 연희성을 강조하기 위해 흥겨운 옛장수 '가위치기' 연주 장면이 더해졌으며, 모듬북 연주가 공연 피날레를 역동적으로 장식하게 된다. 오경택 연출은 "한국 전통 무용극 장르인 <궁: 장녹수전>을 연출하면서, 전통성을 살리려 노력했다."며, "무엇보다 '춤'이 중요하고, 역사적 인물을 소재로 하고 있는 만큼 드라마와 춤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 춤이 드라마가 되고, 드라마가 춤에 녹여질 수 있는 부분에 집중했다."고 연출 포인트를 밝혔다. 조선의 위험한 신데렐라! 조선 최고 예인으로 깨어난 장녹수를 기대해 본다.

문화
공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여 전국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정동극장 '궁: 장녹수전'>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를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궁: 장녹수전 전통 춤 미리보기

장고춤

장고춤은 장고무 혹은 장구춤이라고 불린다. 장고에 끈을 달아 비스듬히 어깨에 둘러메고 장고를 두드리며 여러 가지 장단에 맞추어 춤을 춘다. 공연에서 선보이는 장고춤은 기방형태의 장고춤으로 춤 위주로 구성되며, 장단이 조금 들어간다.



가인전목단

가인전목단은 궁중정재, 궁중무용으로 조선 순조 때 효명세자가 만든 창작무이다. '아름다운 사람이 모란을 꺾는다'는 뜻으로 무대 중앙에 활짝 핀 모란 꽃병을 놓고 춤을 춘다. 이 화병을 목단화준 이라고 한다. 무희들은 양편에서 들어와 춤을 추는데, 앞뒤로 움직이기도 하고 꽃병 주위를 돌기도 하며 춤을 추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이다.



교방무

기녀들을 중심으로 한 가무(歌舞)를 관장하던 기관이 교방(敎坊)이다. 이곳에서 가르치고 배워 추었던 춤을 교방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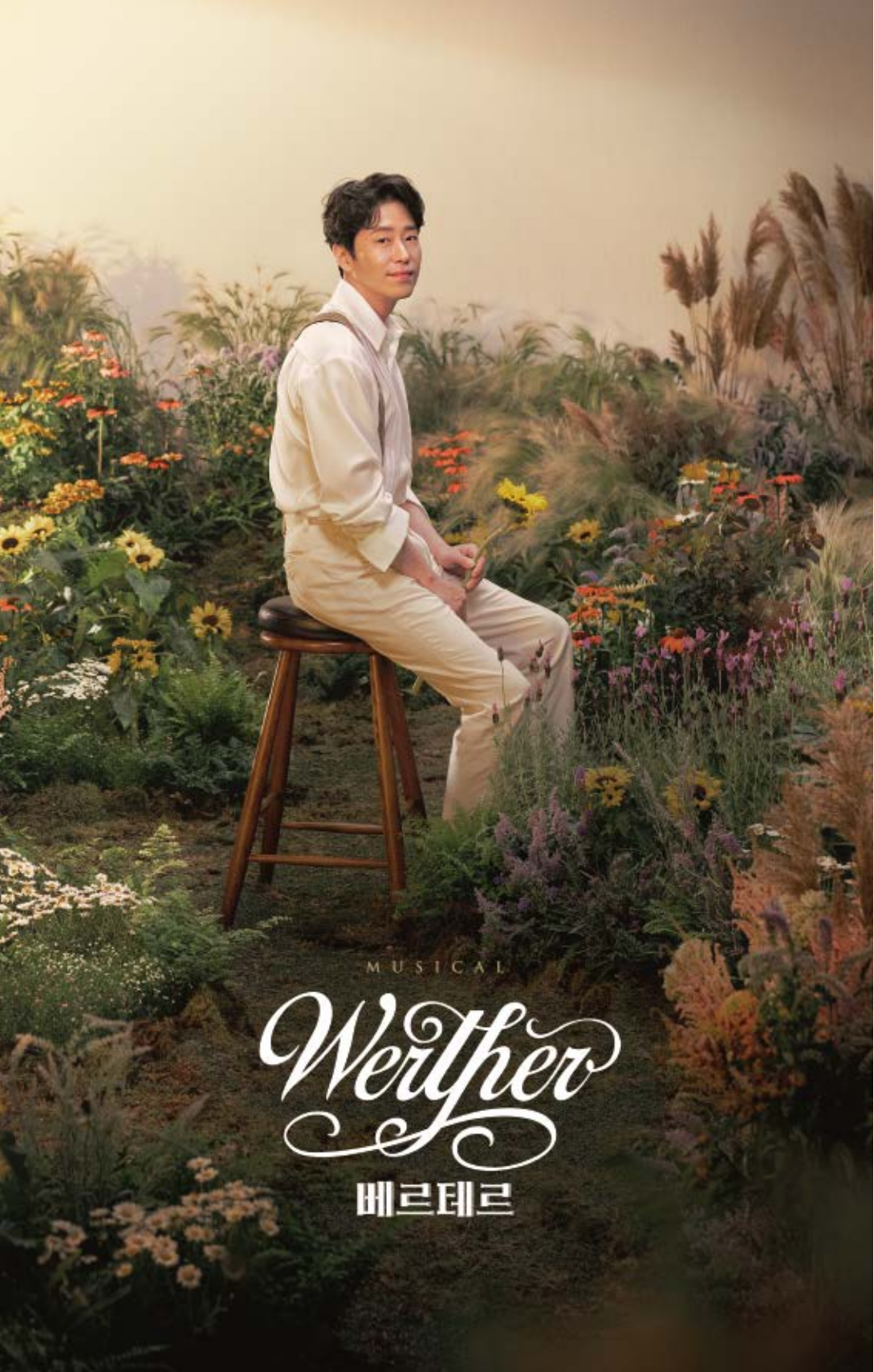
선유락(船遊樂)

신라의 뱃놀이에서 기원한 조선 시대 궁중정재의 한 종목. 화려하게 단장한 배를 끌고 나와 채선(彩船) 둘레에 여러 여가(女妓)가 패를 나누어 서서 배 가는 시늉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추는 춤이다.

정업이 놀이

정애비 혹은 정경이라고도 하는 인형으로 짚으로 만든 사람 모양의 인형이다. 경기도당굿에서는 굿을 마치는 마무리에 이 인형을 때리고, 노래를 부른 후 들 밖에 나가 불을 사르며 나쁜 기운을 태운다. 남근을 희화해 크게 묘사한 것이 특징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이 인형을 가지고, 새로운 놀이의 형태를 창작해 선보인다.





뮤지컬 베르테르

11. 13. - 11. 14.

금 19:30
토 14:00, 19:00

대공연장

V 120,000
R 100,000
S 80,000
A 60,000

8세 이상

창작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베르테르>는 '베르테르'와 '롯데'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원작으로,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는 관객이 관람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이다. '베르테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초연 때부터 유례없는 팬덤 문화를 형성했다.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엄기준, 조승우, 규현, 박건형, 송창의, 김다현, 김재범, 성두섭, 전동석 등 현재 최고의 연기자로 사랑 받는 남자 배우들의 눈부신 활약과 함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뮤지컬 <베르테르>는 엄기준, 카이, 유연석, 규현, 나현우가 '베르테르' 역에 캐스팅되면서, 그 어느 해 보다 다양하고 막강한 '베르테르'를 선보일 예정이다. 2002년 시즌 첫 '베르테르' 역을 맡아, 가장 오랜 기간 '베르테르'를 연기하며 단연 <베르테르>의 간판 배우로 불리는 엄기준은 2015년 15주년 공연 당시 '베르테르'의 폭발하는 격정적 사랑과 섬세하고도 감성 깊은 연기를 선보이며 무대를 장악했다. 올해 또다시 '베르테르' 역으로 돌아온 엄기준은 "'베르테르'로서의 무대는 매번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정말 애정하는 캐릭터 중 하나다. 뮤지컬 배우 초창기 때부터 함께 해 온 <베르테르>의 20주년 공연에 합류할 수 있어 감회가 새롭다. 아낌없이 모든 열정과 감정을 쏟아내겠다"고 벅찬 소감을 전했다. 여기에 2003년 공연 당시 입체감 있는 캐릭터로 <베르테르>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은 대한민국 대표 연출가 조광화와 초연부터 섬세하고 풍성한 선율로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던 구소영 협력연출 겸 음악감독, 뮤지컬 <캣츠>와 <오페라의 유령> 안무를 맡았던 노지현 안무가가 또다시 의기 투합해, 아름답고 서정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배가 시킬 전망이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11.26. - 11.27.

목 19:30
금 19:30

대공연장

V 70,000
R 50,000
S 40,000
A 30,000

48개월 이상

음악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Pyotr I. Tchaikovsky
원작 E. T. A. 호프만 E. T. A. Hoffmann
안무 유리 그리고로비치 Yuri Grigorovich
미술 시몬 비르살라제 Simon Virsaladze
조명 미하일 소콜로프 Mikhail Sokolov
출연 국립발레단 Korean National Ballet
예술감독 강수진 Kang Suejin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이 경남도민을 찾아온다.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걸작으로 꼽히는 〈호두까기인형〉은 세계 유수의 안무가들을 통해 다양한 버전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번 11월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호두까기인형〉은 러시아 대표 볼쇼이발레단의 '살아있는 전설'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한 버전으로, 화려한 춤과 웅장한 군무가 압권이다. 대한민국 발레를 대표하는 국립발레단은 1962년 창단된 국내 최초의 직업발레단으로, 최고의 무용수들과 함께 세계 유명 작품을 레퍼토리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 전막 작품으로는 유리 그리고로비치가 안무한 〈호두까기인형〉, 〈백조의 호수〉, 〈스파르타쿠스〉, 〈라 바야데르〉, 파리오페라발레단 전 부예술감독인 파트리스 바르가 안무한 〈지젤〉을 꼽을 수 있다. 국립발레단 고유의 창작 레퍼토리로는 〈왕자호동〉, 〈허난설현-수월경화〉, 〈호이 람〉이 있고, 2015년부터는 'KNB Movement Series'로 신진 안무가 발굴 및 소품 레퍼토리 개발을 통한 창작 발레 대중화에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발레이야기', '찾아가는 발레교실', '해설이 있는 발레'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해외에 대한민국 발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국립발레단이 선보이는 〈호두까기인형〉은 러시아 그라스나다르 극장에서 직접 제작한 무대세트와 의상, 소품으로 동화 속 세계를 고스란히 담아내어, 관객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할 예정이다.

9월 문화가 있는 날 해설이 있는 발레 - 유니버설발레단

9.29.

화
시간 미정 *추후공지

대공연장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프로그램

발레 해설 문훈숙 단장

〈해적〉中 '알리와 메도라 파드되' 서혜원, 강민우

〈루쓰, 리코디 퍼 두에〉 최지원, 알렉산드르 세이트칼리예프

〈돈키호테〉中 '에스파다와 메르세데스 춤'

이가영, 필리포 안토니오 루사나

특별한 발레 무대가 9월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유니버설발레단이 함께하는 9월 문화가 있는 날 〈해설이 있는 발레〉가 경남도민을 만난다. 이날에는 유니버설발레단 창단멤버이자, 프리마발레리나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 단장의 해설과 최고의 무용수들이 펼치는 3개의 스페셜 갈라가 이어진다. 문훈숙 단장은 발레 역사와 발레 마임, 주요 작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스페셜 갈라는 서혜원과 강민우의 〈해적〉 중 '알리와 메도라 파드되', 최지원과 알렉산드르 세이트칼리예프의 〈루쓰, 리코디 퍼 두에〉, 이가영과 필리포 안토니오 루사나의 〈돈키호테〉 중 '에스파다와 메르세데스 춤'으로 진행된다. 유니버설발레단은 1984년 창단 이후 세계 21개 도시 2,400여 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로 자리매김해왔다. 한국 발레 최초로 해외투어를 시작하여 2001년 미국 3대 극장(워싱턴 케네디센터, 뉴욕 링컨센터, LA뮤직센터) 공연을 성공시키며, 뉴욕타임즈 등 현지 언론과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특히 창작 발레 〈심청〉과 〈춘향〉은 발레의 본고장인 러시아와 프랑스를 포함하여 세계 주요국에 초청되며 '한국 발레의 역사출'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밖에도 케네스 맥밀란, 존 크랑코, 윌리엄 포사이드, 나초 두아토 등 국내에서 만나기 힘든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한국 발레의 레퍼토리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한국 발레의 우수함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현재 유니버설발레단은 차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나눔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상남도문화예술재단

10월 문화가 있는 날 굿Good보러가자

10.31.

토 14:00

대공연장

사전예약에 의한 무료관람

전체관람

일상의
문화
인간
있는
날

주최 국립무형유산원

주관 한국문화재단,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굿Good보러가자>가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찾는다. 무형문화유산과 지역스토리가 가미된 전통 예술 공연 <굿Good보러가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과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형유산 복합행정기관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유산 전시, 공연, 교육, 조사·연구 등 보존과 전승에 앞장서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고궁을 즐길 수 있는 축제인 '궁중문화축전'과 국가무형문화재를 한 자리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대전'을 비롯하여, 전통공연·전시·교육·출판·국제교류·전통음식 보급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더욱 즐겁게 전통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굿Good보러가자> 공연은 '걱정도, 근심도 없는 상태'를 뜻하는 사자성어인 무사무려(無思慮)를 콘셉트로, 지역 전통 예술인 등 최고 명인을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장이 될 것이다.

